

정신간호학실습교육에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실습스트레스가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Influencing Factor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actice Stress on Practice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김미자, 오현주*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Mi Ja Kim, Hyun Joo Oh*

Dep. of Nursing Science,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Daejeon 35408, Korea

[요약]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실습교육에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실습스트레스가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대학 4학년 간호학생 237명이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실습만족도($r=.285, p<.001$)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실습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연계 교육($r=-.13, p<.05$)과 음의 상관관계, 의료진과의 갈등($r=.18, p<.01$)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실습스트레스는 실습만족도($r=-.28,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역할 모델($\beta=-.43, p<.001$), 의사소통능력($\beta=.23, p<.001$), 전공만족도($\beta=.21, p<.01$), 연계 교육($\beta=.20, p<.05$)이었으며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27.1%이었다. 간호학생의 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해 실습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모델, 연계교육과 의사소통능력을 고려한 교수학습법과 프로그램개발이 요구된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factors of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practice stress on practice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237 fourth-year nursing students.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performed using the SPSS/WIN 24.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communication competence was positively related with practice satisfaction, and practice stress were negatively related with practice satisfaction. In regression analysis, Role model, communication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and associated education were confirmed as the predictive factors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It is required to develop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to increase student satisfaction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Key Words: Communication, Nursing student,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http://dx.doi.org/10.14702/JPEE.2023.063>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17 March 2023; **Revised** 27 March 2023

Accepted 4 April 2023

***Corresponding Author**

E-mail: hjoh@dst.ac.kr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에서 임상실습은 간호학생이 현장실습을 통해 간호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론적 지식과 현장 실무를 통합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중요성과 비중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1] 간호학생은 임상실습 동안 역할의 모호성, 실무 중 대인관계 어려움, 역할 수행, 실습과제 및 실습평가까지 다양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 특히 정신간호학 임상실습의 경우 실습현장이 정신병원이라는 점과 질환의 특성 때문에 불안, 두려움 및 편견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소진을 경험하고[1,3]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실습학생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비합리적인 요구 및 실습지도 간호사의 부적절한 역할모델과 같은 실습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4,5]. 과중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과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실습수행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6,7]를 낮출 뿐 아니라 간호전문직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8].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는 간호학생이 정신간호 임상실습을 체험하는 동안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 지도내용, 교육환경, 역할모델, 대인관계 등에서 느끼는 정서적인 만족 상태이며[9] 임상실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10]. 간호학생은 정신간호학실습 동안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3] 정신간호사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새롭게 변화된 정신간호사 이미지를 형성하여 개인의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1,11]. 현대인의 정신건강문제가 증가하면서 정신간호사의 역할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특성을 고려할 때[12] 간호학생의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스트레스 관련요인을 관리하여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의사소통능력은 사회조직과 사회현상의 기본을 이루며 임상현장의 다양한 문제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간호업무수행의 필수적인 핵심역량이다[2]. 정신간호에서 의사소통능력은 환자의 긍정적 행동변화를 위한 목적지향적 행동이며 대상자와의 치료적 관계 성립의 필수 요소인 동시에 그 자체가 주요한 치료기법으로 여겨진다[13]. 간호학생은 임상실습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와 간호사, 의료인과 만나게 되며, 부족한 의사소통능력은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10].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임상실습스트레스[2] 및 임상실습만족도[10,14]와 상관관계가 있고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간호사는 이직 의도가 낮고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13]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 만족도와 의 연관성을 유추할 수 있다.

간호학생의 임상실습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7,15,17], 임상수행능력[6,16], 자아존중감[6], 임상실습환경과 전공만족도[17], 대인관계[15], 의사소통능력[10,14], 간호사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8,18]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전반적인 임상간호실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이며 상당한 임상실습스트레스 부담감을 보고[1,4,5]하는 정신간호학실습에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가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신간호학실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방법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가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 향상을 위한 교육방법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세부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의 수준을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A.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가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를 파악하고 변수간 관계를 파악하여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B.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한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이다. 선정기준은 3학년 1학기부터 정신간호학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고, 3학년 2학기에 정신간호학실습수업을 이수한 학생 중 연구의 목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연구에 참여한다는 자발적 의사를 밝히고 동의서에 자필 서명한 자이다. 연구대상자수는 G*power 3.19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간호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 연구[2,10,15]에 근거한 중간효과크기 .15, 일반적 특성 9개와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하위 영역 8개를 포함한 예측변수 18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수 213명이었으나 일 대학 정신간호학실습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실습만족도를 파악하고자 4학년 250명 전체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13부는 제외되어 최종 분석에 포함된 자는 237명이다.

C. 연구 도구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Rubin 등[19]의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ICC)를 Hur[20]가 번역 보완하고 Lee[21]가 수정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Hur[20]의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Lee[21]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다.

2)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는 Bae[4]가 간호학생의 실습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작성한 도구를 Kim[9]이 수정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환자와의 갈등, 교육환경, 전문지식 및 기술, 역할 모델, 전이 감정, 연계 교육, 의료진과의 갈등 및 업무의 한계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총 32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9]의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요인 별 Cronbach’s α 는 .61~.83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도구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요인 별 Cronbach’s α 는 .61~.80으로 나타났다.

3)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는 Kim[9]이 개발한 도구로 간호학생이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기술습득, 실습 내용, 실습기관의 교육환경, 실습 업무, 실습업무지도, 실습 시간의 적절성, 역할 모델, 대인과의 관계, 환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 등의 총 9문항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로 나타났다.

D.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하였으며(IRB-2017-003-116) 연구의 자료는 2017년 5월 25일부터 6월 3일까지 수집하였다. 연구자는 모든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연구 참여의 이익과 불편함, 비밀보장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도중 원하지 않을 경우 참여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설문지 작성 소요시간은 10~15분 정도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부호화하여 컴퓨터에 입력하였고 암호를 설정하여 연구자만 접근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잠금 장치가 있는 서랍에 보관하였다가 연구 종료 후 폐기 예정이다.

E.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의 차이는 χ^2 -test 및 independent t-test, ANOVA로 분석한 후 사후검정으로 Scheffé test를 하였다.

셋째,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가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37)

Variables	Categories	n(%) or M±SD
Gender	Male	22(9.3)
	Female	215(90.7)
Religion	Yes	114(48.1)
	No	123(51.9)
Economic state	High	47(18.9)
	Moderate	159(67.9)
	Low	13(13.2)
Grade points	High	49(20.7)
	Moderate	129(54.7)
	Low	58(24.6)
Major satisfaction	High	114(48.1)
	Moderate	91(38.4)
	Low	32(13.5)
	Recommended by family	32(13.1)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One's will	127(53.6)
	Employment	76(32.1)
	Volunteer	3(1.2)
Desire to work in psychiatry	Yes	86(36.3)
	No	64(27.0)
	Not sure	87(36.7)
Thoughts on patients before practice	Positive	58(24.5)
	Negative	124(52.3)
	Not sure	55(23.2)
Thoughts on patients after practice	Positive	184(77.6)
	Negative	15(6.3)
	Not sure	38(16.1)

III.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성 215명(90.7%)이었고, 종교는 있음 114명(48.1%)과 없음 123명(51.9%)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경제 상태와 학점은 중간이 각각 159명(67.9%), 129명(54.7%)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높음 114명(48.1%), 보통 91명(38.4%)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학과선택동기는 자신의 의지 127명(53.6%)이 가장 많았다. 정신과 근무 희망 여부는 잘 모르겠음 87명(36.7%), 희망 86명(36.3%)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정신간호학실습 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은 부정적 생각 124명(52.3%)이 가장 많았고, 정신간호학실습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은 긍정적 생각 184명(77.6%)으로 나

표 2.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 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의 정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communication competence,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tress, and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N=237)

Variables	M±SD	Range	Min	Max
Communication Competence	3.75±0.47	1~5	2.13	4.93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tress	2.89±0.42	1~5	1.56	4.41
Conflict with the patients(Sub PNPS1)	2.64±0.59	1~5	1.00	4.14
Educational environment(Sub PNPS 2)	2.90±0.60	1~5	1.17	5.00
Expertise and Skills(Sub PNPS 3)	3.25±0.67	1~5	1.00	5.00
Role model(Sub PNPS 4)	2.91±0.59	1~5	1.25	5.00
Transference emotion(Sub PNPS 5)	2.90±0.44	1~5	1.33	4.13
Associated education(Sub PNPS 6)	3.04±0.77	1~5	1.00	5.00
Conflict with medical staff(Sub PNPS 7)	2.68±0.60	1~5	1.00	4.00
Work limits(Sub PNPS 8)	3.06±0.62	1~5	1.33	5.00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3.56±0.59	1~5	2.22	5.00

* PNPS :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tress

타났다(표 1).

B.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의 정도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75±0.47점이었고,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는 평균 2.89±0.42점, 하위 영역별 환자와의 갈등 2.64±0.59점, 교육환경 2.90±0.60점, 전문지식 및 기술 3.25±0.67점, 역할 모델 2.91±0.59점, 전이 감정 2.90±0.44점, 연계 교육 3.04±0.77점, 의료진과의 갈등 2.68±0.60점, 업무의 한계 3.06±0.62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는 평균 3.56±0.59점으로 나타났다(표 2).

C.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도(F=3.2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 검증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보통과 불만족인 경우보다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는 전공만족도(F=3.77, p<.05)와 정신간호학실습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F=5.81,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결과 전공만족도가 높은 경우, 정신간호학실습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경우가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는 전공만족도(F=8.64,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

Table 3. Differences in study variables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37)

Variables	Categories	Communication Competence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tress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55.00±8.11	-0.82(.412)	88.62±13.21	-1.44(.150)	31.95±5.52	-0.12(.907)
	Female	56.29±6.89		93.07±13.46		32.09±5.31	
Religion	Yes	56.44±7.08	0.60(.550)	93.80±14.54	1.17(.242)	31.54±5.51	-1.48(.139)
	No	55.89±6.98		91.69±12.45		32.57±5.12	
Economic state	High	57.55±6.49	2.21(.112)	91.00±11.76	0.46(.630)	32.65±4.25	0.98(.379)
	Moderate	56.16±6.92		92.97±14.02		32.16±5.36	
	Low	54.06±8.02		93.83±11.93		30.93±6.15	
Grade points	High	56.96±6.80	0.57(.564)	92.10±14.58	2.22(.112)	32.51±4.49	0.64(.526)
	Moderate	56.16±7.12		91.50±12.62		32.19±5.53	
	Low	55.49±7.03		96.04±13.96		31.40±5.52	
Major satisfaction	High ^a	57.39±6.74	3.26(.040) a>b, c	90.91±14.13	3.77(.025) a<c	33.50±5.35	8.64(<.001) a>b
	Moderate ^b	54.92±7.01		94.53±12.52		30.46±4.65	
	Low ^c	55.22±9.15		101.56±9.89		31.56±7.80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Recommended by family	55.42±8.34	0.45(.417)	93.04±12.61	1.64(.917)	33.13±5.30	0.45(.716)
	One's will	56.88±6.75		91.25±13.79		31.89±5.19	
	employment	55.29±6.91		95.19±12.85		31.99±5.59	
	volunteer	56.67±3.21		85.00±19.08		32.00±4.36	
Desire to work in psychiatry	Yes ^a	56.60±7.34	1.24(.290)	92.60±12.77	1.94(.147)	33.40±5.35	4.82(.009) a>b
	No ^b	56.87±7.09		95.21±12.68		30.81±5.34	
	Not sure ^c	55.24±6.57		90.77±14.53		31.71±5.02	
Thoughts on patients before practice	Positive	56.86±5.99	0.41(.667)	92.84±14.54	1.24(.291)	33.00±5.94	1.26(.286)
	Negative	56.03±7.37		93.68±12.94		31.66±4.99	
	Not sure	55.75±7.24		90.15±13.36		32.06±5.30	
Thoughts on patients after practice	Positive ^a	56.63±6.79	2.34(.099)	91.42±13.53	5.81(.003) a<b	32.59±5.48	3.77(.024) a>c
	Negative ^b	56.07±6.51		103.20±10.44		30.53±3.25	
	Not sure ^c	53.92±7.96		94.22±12.45		30.26±4.68	

$p<.001$), 정신과 근무 희망 여부($F=4.82, p<.01$), 정신간호학 실습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F=3.77, p<.05$)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사후검증결과 전공만족도가 높고,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며, 정신간호학실습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인 경우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3).

D.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

의사소통능력은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r=.285, p<.001$)

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하부 영역 중 연계 교육($r=-.13, p<.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 의료진과의 갈등($r=.18, p<.01$)과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는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r=-.28, p<.001$)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하부영역으로 환자와의 갈등($r=-.16, p<.05$), 교육환경($r=-.29, p<.001$), 역할 모델($r=-.37, p<.001$), 연계 교육($r=-.18, p<.01$), 의료진과의 갈등($r=-.22, p<.001$), 및 업무환경($r=-.17, p<.05$)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4.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 실습스트레스,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237)

Variables	Categories	CC r(p)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tress								PS r(p)	
			Total	Sub 1	Sub 2	Sub 3	Sub 4	Sub 5	Sub 6	Sub 7		Sub 8
			r(p)	r(p)	r(p)	r(p)	r(p)	r(p)	r(p)	r(p)		r(p)
CC	Total	1										
	Total	-.10 (.136)	1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tress	Sub 1	-.13 (.050)	.74*** (<.001)	1								
	Sub 2	.00 (.985)	.80*** (<.001)	.39*** (<.001)	1							
	Sub 3	.05 (.455)	.63*** (<.001)	.36*** (<.001)	.37*** (<.001)	1						
	Sub 4	.04 (.505)	.80*** (<.001)	.45*** (<.001)	.68*** (<.001)	.44*** (<.001)	1					
	Sub 5	.01 (.912)	.52*** (<.001)	.37*** (<.001)	.30*** (<.001)	.33*** (<.001)	.40*** (<.001)	1				
	Sub 6	-.13* (.041)	.69*** (<.001)	.39*** (<.001)	.50*** (<.001)	.47*** (<.001)	.58*** (<.001)	.35*** (<.001)	1			
	Sub 7	.18** (.007)	.57*** (<.001)	.44*** (<.001)	.37*** (<.001)	.11 (.093)	.38*** (<.001)	.24** (.001)	.33*** (<.001)	1		
	Sub 8	.08 (.258)	.62*** (<.001)	.33*** (<.001)	.56*** (<.001)	.28*** (<.001)	.45*** (<.001)	.17** (.008)	.38*** (<.001)	.31*** (<.001)	1	
PS	Total	.28*** (<.001)	-.28*** (<.001)	-.16* (.016)	-.29*** (<.001)	-.09 (.159)	-.37*** (<.001)	-.06 (.403)	-.18** (.006)	-.22*** (<.001)	-.17* (.010)	1

CC: communication competence, PS: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Sub 1=Conflict with the patient, Sub 2=Educational environment, Sub 3=Expertise and Skills, Sub 4=Role model, Sub 5=Transference emotion, Sub 6=Associated Education, Sub 7=Conflict with medical staff, Sub 8=work limits
*p<.05, **p<.01, ***p<.001

표 5.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의 영향요인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atisfaction (N=237)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29.94	4.13		7.24	<.001
Grade points	-0.61	0.52	-.08	-1.15	.252
Major satisfaction	1.91	0.60	.21	3.17	<.01
Desire to work in psychiatry	-0.72	0.40	-.11	-1.82	.07
Thoughts on patients after practice	-0.25	0.45	-.04	-0.57	.571
Communication competence	0.17	0.05	.23	3.64	<.001
Conflict with the patients	0.11	0.09	.09	1.17	.244
Educational environment	-0.19	0.14	-.13	-1.41	.161
Role model(Sub PNPS 4)	-0.97	0.21	-.43	-4.58	<.001
Associated Education(Sub PNPS 6)	0.68	0.28	.20	2.48	.014
Conflict with medical staff(Sub PNPS 7)	-0.21	0.21	-.07	-1.00	.316
Work limits(Sub PNPS 8)	0.1	0.21	.04	0.47	.639
R ² =.38, Adj.R ² =.27, F=7.75, p<.001					

* PNPS: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Stress

E.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가 정신간호학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연구 변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학점, 전공만족도, 정신과 근무 희망 여부, 정신과 실습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 의사소통능력,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의 하위 영역 중 환자와의 갈등, 교육환경, 역할 모델, 연계 교육, 의료진과의 갈등 및 업무 한계를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 상관과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산성을 검토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2.164로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산성은 VIF 지수를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VIF 지수는 1.08~2.45로 10 미만이므로 다중공산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데이터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역할 모델($\beta = -.43, p < .001$), 의사소통능력($\beta = .23, p < .001$), 전공만족도($\beta = .21, p < .01$),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연계 교육($\beta = .20, p < .05$) 순으로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변수들의 설명력은 27.1%로 나타났고, 회귀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 = 7.74,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정신간호학실습에서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실습스트레스가 실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효과적인 교육방법 및 임상실습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5점 만점에 3.75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14]의 3.5점, 3.67점보다 약간 높은 것이다. 선행연구의 대상은 임상실습을 경험한 2~4학년생이었던 것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정신간호학실습을 경험한 4학년 단일학년 대상자로 구성되었다. 이것은 4학년의 의사소통능력이 2,3학년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2]와 유사한 것이고, 정신간호학실습이 다른 교과에 비해 환자와의 관계형성과 치료적 의사소통을 통한 간호 과정의 적용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으로 [22] 여겨지며, 1년 이상 임상실습의 경험으로 의사소통에 대한 개인적 역량 역시 향상된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는 평균 5점 만점에 2.89점으로 같은 대상과 같은 도구를 사용한 Kim[9]의 3.12점보다 약간 낮으며, Bae[4]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정신실습스트레스 하위 영역 중 전문지식 및 기술 3.25점, 연계 교육 3.04점, 업무의 한계 3.06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9]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최근 연구[24]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과 실습 업무 부담이 각각 2.97점, 전문지식 및 기술의 부족이 2.86점의 결과를 보여 스트레스 인지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높은 스트레스요인으로 나타난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4], 간호학생이 실습현장에서 자신감 및 대처 부족 등 어려움을 느끼게 하여 실습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9]. 그 다음 순위인 연계 교육과 업무의 한계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임상에 적용하기 어렵고 적절한 의사소통기술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함을 보고한 연구결과[4,9]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임상 실습 전 학생들에게 실습업무내용을 명확한 오리엔테이션 교육으로 보완하고[24] 표준화환자[22], 역할극[25] 온라인[26] 시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교수학습법을 통해 현장감 있고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을 실시하여 충분한 지식과 실기 습득, 자신감, 의사소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을 기르게 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는 평균 5점 만점에 3.56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9]의 연구 평균 3.31점보다 약간 높은 것이며 온라인정신실습[26]의 만족도 4.03점보다 낮은 것이다. 이것은 Kim[9]의 연구대상자와 본 연구대상자가 3학년과 4학년으로 교육 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지며, 대면실습과 온라인실습의 교육환경 차이[27]와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온라인실습의 긍정적인 평가를 반영하고, 임상실습만족도 향상의 영향요인으로 보고되는 교수 효율성[16]과 임상실습 교육환경[17]을 개선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의 차이는 전공만족도, 정신과 근무 희망 여부, 정신간호학실습 후 정신질환자에 대한 생각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학점과 전공만족도[15]가 높을수록, 대학생만족도, 전공만족도, 실습동료와의 관계가 좋을수록[10] 임상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므로 각 학년마다 전공만족도향상을 위한 개별적 접근을 시도하고 그 효과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신과 근무를 희망하고 정신간호학실습 후 환자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일수록 실습만족도가 높은 것은 간호학생이 정신간호학실습을 통해 정신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3] 및 간호사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1] 환자와의

거리감이 줄어드는 경험을 보고한 결과[11]를 뒷받침한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실습을 통한 올바른 정신간호사의 역할 이해 및 전문직관 확립이 더욱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 및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사소통능력은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정신간호학실습스트레스는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능력과 임상실습만족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10,14]와 일치하며 임상실습스트레스와 실습만족도와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고한 연구결과[8,10]와 일치하는 것이다. 학생의 과중한 스트레스는 학습능력을 감소시키고 학업만족도에 부정적 영향[2]을 주므로, 실습스트레스요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학교 내 프로그램 운영 등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간호학생의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부족한 역할모델,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연계교육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호학생의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서 실습스트레스 하위영역 중 부족한 역할모델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Park 등[2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며, 선행연구[1,5]에서 학생들이 정신병원 임상실습 동안 간호사의 비교육적 행동 및 부적절한 간호 행위에 실망함을 보고한 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임상실습환경, 관계갈등, 부적절한 역할 모델, 환자와의 갈등은 간호학생의 진로성숙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28] 정신실습동안 지지적인 임상 멘토의 존재는 학생의 실습 스트레스대처와 적용에 중요하다[5]. 따라서 대학과 임상실습기관은 현실적인 역할 모델을 제시[24]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임상 실습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며 임상간호사는 간호사가 교육환경에 포함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실습만족도와 관련된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연계교육은 학교의 교육내용과 임상실무의 연결이 힘들어 스트레스를 보고한 선행연구[9] 결과를 지지한다. 이론적 지식이 실무에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의 기회, 실무관련성 및 참여기회가 많아야 [29] 하므로 실습교육의 효율성과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개선 및 평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서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것은 임상실습만족도 영향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을 보고한 선행연구[10,14]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간호학생의 대인관계와 임상실습만족도간 순 상관관계[15]가 있으며 정신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유의하게 이직 의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13]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의사소통능력은 간호업

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성과달성을 높일 뿐 아니라 정신간호에서 환자와 가족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간호중재로[12]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심화직무교육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다[12,13]. 간호사의 직업적응과 업무성과의 향상뿐 아니라 간호학생의 실습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에서 간호학생을 위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적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전공만족도가 정신간호학실습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된 것은 전공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만족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선행연구[7,10,14,15,17]의 결과를 지지한다. 전공만족도는 긍정적인 간호사 이미지 및 간호전문직관과도 관련[14,18]이 있으므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 입학 초기부터 학생 상담 및 직무이해 프로그램과 같은 다각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실습스트레스요인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하고 대학교육안에서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정신간호학실습에서 간호학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부분 대학에서 의사소통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강의식 교육에 그치고 있어 학생들이 간호현장에서 적용 시 어려움을 보고한다[2,23]. 간호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을 높이기 위해 학년별 교육요구도를 파악하고 다양한 임상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평가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간호학생을 편의표집하여 수행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나 정신간호학실습에서 간호학생의 실습만족도 영향요인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실습 스트레스를 개선하고 실습교육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포함한 간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M. Kim, "Phenomenological research of lived-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um in psychiatric departments," *Journal of Qualitative Research*, vol. 15, no. 1, pp. 13-23, 2014.
- [2] S. Y. Yang,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clinical practice stress of th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6, no. 9, pp. 286-296, 2016.
- [3] S. Son, & E. Park,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 mental disorders in the clinical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9, no. 4, pp.285-295, 2020.
- [4] J. I. Bae, “A study on the stress and recognition for psychiatric patients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linical experience in the psychiatric uni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8, no. 2, pp. 411-423, 1999.
- [5] J. Galvin, E. Suominen, C. Morgan, E. J. O’connell, and A. P. Smith, “Mental health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stress during training : a thematic analysis of qualitative interviews,” *Journal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2, pp. 773-783, 2015.
- [6] M. S. Chung, “The relations of self-esteem, practical performance, and practical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18, no. 1, pp. 60-68, 2009.
- [7] H. S. Yu, “Relationship among stress of clinical practice, practice satisfac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7, no. 2, pp. 1129-1144, 2015.
- [8] J. E. Choi,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on nursing professionalism o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 10, no. 2, pp. 351-359, 2022.
- [9] S. H. Kim, “Influencing factors on the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according as the mental health nursing practice,”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2010.
- [10] M. Y. Kim, E. H. Kang, and E. K. Byun, “Influencing of stress in clinical practic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skill on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 19, no. 3, pp. 1699-1710, 2017.
- [11] Y. H. Cho, “Effects of Mental health clinical practice on the attitude toward the mental illness, social distance, psychiatry nurses’ imag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9, no. 11, pp. 371-378, 2018.
- [12] M. Son and S. Kim, “The mediating effect of empower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cation ability and nursing performance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9, no. 2, pp. 177-184, 2020.
- [13] H. S. Kang and Y. Y. Kim, “Influence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stress coping on turnover intention in psychiatric nurs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 pp. 141-151, 2016.
- [14] E. Gil, “Affecting factors on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Health Communication*, pp. 43-51, 2018.
- [15] H. W. Kwak and J. E. Yi, “Rela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clinical stres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147-155, 2016.
- [16] J. S. Kim and S. J. Park,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and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of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competence,”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3, no. 3, pp. 13-22, 2019.
- [17] S. O. Shin, “Relation among clinical learning environment, clinical practice course satisfaction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7, no. 6, pp. 19-24, 2017.
- [18] N. K. Lee and N. An, “The influence of self-esteem and the image of a nurse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on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focused on subject to clinical practice education during the COVID-19 outbreak,”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2, pp. 81-93, 2021.
- [19] R. B. Rubin, P. Palmgreen, and H. E. Sypher, *Communication Research Measures: a Source Book*, NY: Guilford Press, 1994.
- [20] G. 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 [21] M. J. Lee, “Occupational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resilience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among clinical nurses,” Pusan National University, Pusan, 2016.
- [22] J. S. Han, H. C. Baek, and A. S. Jeong, “The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simulation on anxiety and self-confidence about clinical plac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812-7819, 2015.

- [23] M. Y. Jung and J. Bae, "Educational needs of communic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8, no. 1, pp. 91-101, 2019.
- [24] J. M. Park and H. Y. Kim,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in the psychiatric unit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5, pp. 817-825, 2022.
- [25] E. S. Han and S. H. Kim,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bility, communication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process of nursing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simulation education applying role-play based on cases of schizophrenic pati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2, no. 7, pp. 133-143, 2022.
- [26] M. J. Kim and H. J. Oh, "Factors affecting the problem-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received on-line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vol. 20, no. 6, pp. 93-104, 2022.
- [27] H. S. Kim, E. M. Kim, and D. S. Lee,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education in school practice: focused on psych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2, pp. 169-178, 2021.
- [28] S. Y. Han, S. J. Kwak, C. B. Choi, H. J. Jeon, and M. K. Lee, "Association of nursing activity participa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with career maturity during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KASNE*, vol. 26, no. 4, pp. 337-347, 2020.
- [29] S. Liebermann and S. Hoffmann, "The impact of practical relevance on training transfer: evidence from a service quality training program for German bank clerk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ining and Development*, vol. 12, no. 2, pp. 74-86, 2008.



김미자 (Mi Ja Kim)_정회원

1990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3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2015년 3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관심분야) 정신간호, 감염관리



오현주 (Hyun Joo Oh)_정회원

1992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8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 박사
2019년 4월 ~ 현재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
(관심분야) 정신간호, 간호교육